

# ‘농가소득 ↑’ 화순군, 온라인쇼핑몰 시스템 개편

## 카카오페이등 결제수단 다양화 홍보·판매촉진 오픈할인행사도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고객확보를 위해 지역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개편했다.

6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민선 8기 공약사항인 화순팜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화

순팜 시스템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 구복규 군수, 농협 관계자, 화순팜 임직원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개편된 시스템을 확인했다.

‘화순팜’은 화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최소화된 유통과정으로 로컬푸드와 연계해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값싸고 빠르게 배송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개편된 화순팜 시스템으로 △화순팜 CI 리뉴얼 △핸드폰 앱(APP) 개발 △결제 수단 구축(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제로페이 등) △복지포인트물 연계 △쿠폰/적립금 기능 등이 있다.

화순군은 화순팜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달 27일부터 2주간 신규 홈페이지(www.hwasunfarm.com)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리뉴얼된 화순팜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개편된 화순팜을 오픈하면서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오픈 할인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어 물리적 제약을 넘어 화순군 우수 농특산물을 알릴 예정”이라며 “화순 농특산물이 화순팜에서 판매된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로 제품을 등록해 ‘돈버는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 말벌·응애 대응 관리 당부 화순군, 피해 대처 적극 나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양봉농가에 대해 말벌 및 응애 피해 관련 집중 관리를 당부했다고 6일 밝혔다.

등검은 말벌은 3~5월 무리를 형성하기 전 여왕벌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 양봉장 근처에 출현하는 여왕벌을 포획하면 가솔철 수천마리 말벌을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봄철 여왕 말벌 퇴치를 위해 유인트랩을 유인액과 함께 서식지 인근 야산이나 양봉장에서 먼 변두리에 설치해 포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주변 양봉농가들과 공동설치하는 게 좋다.

꿀벌응애는 6월 초 증식해 9월 피해 수준까지 증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8월 안에 방제해 밀도를 낮추고 관리해야 한다.

꿀벌응애 방제를 위해 친환경 방제와 화학적 방제를 병행하는 게 좋다.

꿀벌류응애 화학적 방제에 동물의약품인 스트립(플루바리네이트)과 액제(아미트라즈)를 쓴다. 스트립은 벌집 사이에 끼워 사용하며 액제는 벌집과 꿀벌에 분무한다. 친환경 방제제인 개미산은 30ml(60% 농도)를 기화기에 넣어 사용하는 게 좋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말벌 퇴치를 위해 상반기에 말벌 포획장비 보급 실 사업 신청서를 받아 포획장치를 3월 초 배부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중 기자**

## 곡성군, 희망복지 기동 서비스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지난 2일 목사동면 동암마을에서 2023년 첫 번째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실시했다.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는 농기계 수리, 한방진료, 전기안전 점검, 이동빨래방, 칼갈이, 맞춤형 상담, 여성취업상담, 방역소독서비스, 재활취업상담, 주택소방 안전점검, 아동학대예방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아동학대예방 홍보서비스가 추가됐다. 지역주민들이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올바른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가장 큰 눈길을 끌었던 복지서비스는 곡성군청에서 재직하였던 퇴직공무원들로 구성된 ‘다림돌 봉사단’의 봉사활동이었다.

다림돌 봉사단은 칼, 가위, 낫 등을 갈아주는 등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수도꼭지 교체작업 등 생활 불편사항도 해결한다.

안마 서비스를 봉사하는 퇴직공원은 스포츠마사지 2급, 카이로프랙틱(추나요법) 2급, 운동처방사 2급, 요가강사 3급 등을 구비한 전문가다. 부모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재능을 쓰고 싶다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에 동참하고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 농촌지도 혁신전략 직원교육 담양군, 농촌사업 역량 강화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3일 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미래농업 실현 농촌지도 사업 혁신전략’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농촌지도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소통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지도사업 3대 전략인 디지털 농업, 참여주체 확대, 현장수요 예측 미래사업 전환과 9개 중점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강사로 나선 노형일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장은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과 청년 농업인 육성, 치유농업, 농작업 안전 분야 법적 업무와 미세먼지 저감 등 정책업무 영역확대에 대한 고민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농업실천, 스마트팜 전환에 따른 데이터 구축을 위한 농촌지도 자세를 강조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군이 농업현장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농촌진흥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곡성군이 목사동면 동암마을에서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를 시행했다.

곡성군 제공

##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두 달 만에 1억 돌파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 누적 기부액이 두 달 만에 1억 원을 넘어섰다.

장성군은 지난달 28일 기준 총 348명이 장성군 고향사랑기부금에 참여해 기부금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

금액별로는 기부자의 80%인 287명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했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23명에 달했다.

답례품으로 장성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사과, 대봉꽃감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이 많은 선택을 받았다.

장성군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억

원 달성을 기념해 추후 감사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금 안착을 위해 차별화된 답례품을 추가 발굴에 나선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유병현 기자**

## 곡성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 안전수칙 준수 당부 등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지난 3일 곡성읍 전통시장에서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오는 10일 석곡면 전통시장, 14일 옥곡면 전통시장 일원에서 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곡성군은 캠페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홍보

물을 배포했다. 홍보물은 트랙터, 경운기와 같은 동력 엔진 사용요령, 보관요령,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농업기계 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스티커나 저속차량표시등(경광등)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11개 읍면사무소에 농업기계 안전 사용 방송안을 배부해 마을방송을 실시했다.

읍면 주요도로 11개소에 안전사고 예

방 현수막을 게첨해 운전 부주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사고 방지를 계도할 예정이다.

8월과 9월 버스터미널과 전통시장 일원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관계자는 “농기계 안전사고 원인은 조작미숙과 교통사고다. 음주운전 금지, 야간운전은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나주시, 홀몸노인에 난방비 4억2000만원 2차 지원

나주시는 저소득층 홀몸노인의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난방비 4억 20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2차 난방비 긴급 지원은 고유가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65세 이상 홀몸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한 2100명에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앞서 지난 1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노인맞춤돌봄대상자 2205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491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5억3900만원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2차 난방비 지원 신청은 오는 16일까지이며,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보호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2차 난방비 지원이 늦겨울 추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길 바란다”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적기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 정상 운영 화순군, 11월30일까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월30일까지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휴일에도 정상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화순군은 본소(능주면), 분소(동북면) 2곳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근무는 농업인들이 휴일에도 농업기계를 임대해 농업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영농철 확대근무는 공휴일을 포함한 토요일, 일요일에 오전 9시~오후 6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트랙터, 관리기 등 67종 446대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오는 6월까지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화순=김선중 기자**

## 전남 158곳 토양오염도 조사 영산강환경청, 23개 항목 분석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23년 전남 토양측정망 158곳에 대해 오염도를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청은 오는 6월까지 토양시료를 채취해 유기화합물과 금속류(카드뮴·구리·비소·수은·납·아연·니켈) 등 23개 항목을 분석한다.

정부는 토양 오염도를 측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원·공장 등 대표 지점을 선정해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토양측정망 조사 결과 오염도가 초과한 지점은 없었다.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밀 조사와 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